

## 중국기업에 대한 대만 시장개방과 양국 기업 설문조사

### 1. 대만 시장 개방의 최근 배경

- 2008년 3월 22일 제12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국민당 마잉주(馬英九)는 양국 관계에 있어서 독립·통일 논의보다는 경제교류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양국의 경제협력 분위기가 급속도로 개선되었음.
- 마잉주 당선 이후 양국간 정상급 회담이 개최되고 기존의 협상채널이 재개되면서, 투자 환경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됨.
  - 기존 협상채널이었던 중국측 해협양안관계협회(海峽兩岸關係協會)와 대만측 해협교류기금회(海峽交流基金會)의 대화가 2008년 6월(중국 베이징), 11월(대만 타이베이), 2009년 4월(중국 난징)에 3차에 걸쳐 재개되었음.
  - 정상급 회담과 협상회의 결과 직접교역(通商)·정기수송(通航)·서신왕래(通郵)로 불리는 3통(通)을 실현하고, 항공·해운 직통항로 개설을 합의함.
- 2009년 5월 1일 대만 금융감독원은 양국 간의 금융협력을 발표하였음.

- 1949년 이후 최초로 대만 자산시장(Money market)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허용하면서, 중국 투자자들은 대만기업 시가총액의 10% 미만의 범위에서 투자가 가능하게 됨(10% 초과 시는 대만 경제부의 승인 필요).

□ 2009년 5월 4일 중국 국무원은 대만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만해협 서안인 푸저안(福建)성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“해협서안(海峽西岸)경제구” 건설안을 발표함.<sup>1)</sup>

□ 2009년 5월 16일 제1회 해협포럼에서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왕이(王毅)주임이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8개 구체방안 제시. (표 1 참조)

<표 1> 경제협력 진전을 위한 8개 방안

| 분 야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촉진  | 전자, 통신, 생물의약, 해양운수, 공공건설, 유통, 방직, 기계, 자동차 제조 등의 분야에 대한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촉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국, 대만 상품 구입   | 상·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과일, 야채, 수산물 등 농수산물 구매와 5,6,7월 세 차례에 걸쳐 일상용품, 식품가공품 등 공산품 구매를 위한 사절단 파견                   |
| 대만기업의 중국 투자 촉진 | 대만기업의 중국내 인프라스트럭처 등 주요 건설사업 지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국인들의 대만 여행 장려 | 올해 60만 명 이상이 대만을 여행할 수 있도록 장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 노력 | 공식화된 경제협력기본협정 (ECFA;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) <sup>2)</sup> 체결 수립에 노력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합의 시작 |
| 전문자격증 시장 일부 개방 | 회계사, 환경영향평가사, 기업법률고문 등 11개 전문자격증 시험을 대만인에게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협력           | 기존의 11개 농업합작사 외에 4개 추가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법률서비스 일부 개방    | 대만 법률회사들이 푸저우, 샤먼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 : 한국은행 북경사무소, 「양안(兩岸)관계 변화과정과 전망」 (2009. 6. 15)

## 2. 대만 시장 개방을 위한 제1단계 “투자세척” 발표

### 가. “투자세척” 의 개요

□ 2009년 6월 30일, 대만 경제부는 양국 투자협력 1단계로 3대 유형 192개 업종에 대해

- 1) 해협서안경제구는 창장(長江)삼각주, 주강(珠江)삼각주, 환보하이(環渤海)경제권에 이어 중국 제4의 경제성장축으로 개발될 전망.
- 2) 2009년 10월~12월중에 열릴 제4차 협상회의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(ECFA :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)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임.

중국기업의 對대만 투자를 개방하는 "투자세칙"을 발표하여, 정식으로 쌍방 투자시대가 개막되었음.

- 1980년대 말부터 이미 대중국 투자를 진행해온 대만은, 2001년도부터 자국 시장의 개방 여부를 고민해오다 8년 후인 2009년부터 개방하기로 결정함.

- 개방의 3대 유형은 제조업(64개 업종), 서비스업(117개 업종), 공공건설업(11개 업종)임.

□ “대만에 유리하도록 개방한다” 는 개방의 일반원칙 하에, 대만의 발전된 산업을 위주로 개방함.

## 나. “투자세칙” 의 구체적인 내용

### 1) 제조업 : 64개 업종 개방

□ 개방이 허용된 64개 업종은 대만 제조업 분류기준에 따른 전체 212개 업종의 30%를 차지함.

□ 제조업 개방의 주요 원칙

- “화교 및 외국인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, 투자금지 및 제한 업종”, “중국에서 투자 또는 기술협력 금지에 속하는 업종(예컨대, TFT-LCD 등)”은 잠시 개방 보류함.

- 양국 산업의 협력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하는 업종 개방함 : 가전, 컴퓨터 외부 제조 개방. 전자부품은 피동 부품<sup>3)</sup>만 개방함.

- 상하로 산업망을 연결하고,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며, 제조 및 관리능력이 있는 항목을 개방함 : 방직업, 자동차, 고무제품 제조업,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

□ 중국기업이 대만에서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△전자공업용 평면 디스플레이(面板), △집적

---

3) 전자부품은 주동부품과 피동부품의 2가지로 구분됨. 그 중 피동부품은 전기가 없이 움직이며 전류와 전압을 조절하고, 축전(儲存靜電)하며, 전자파 간섭을 방지하며, 불순 전류를 여파하는 기능을 담당함.

회로 산업, △중약업(中药业), △경영업(营造业)은 아직 개방하지 않음

## 2) 서비스업 : 117개 업종 개방

□ 개방이 허용된 117개 업종은 대만의 서비스업 표준 분류체계에 따른 전체 326개 업종에서 36%를 차지함.

□ 서비스업 개방의 주요 원칙

- 상업활동 및 상품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분야, 서비스업자가 대응능력이 있는 분야 (도매업, 소매업) 우선 개방함.
- 양국의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, 중국 국적의 기업가가 선박운송업 및 민용 항공운수업을 위해 대만에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립을 개방함.
- 학위 획득 및 전문 자격(변호사, 회계사 등)과 관련되는 모든 것, 또는 대만기업가의 적응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개방을 잠시 보류함.

□ 제2종 전신업(电信业)에 대한 중국기업의 주식 보유가 50%를 넘지 않아야 함.

- 제2종 전신업은 부가가치 서비스(增值服务), 전화카드 판매 등을 포함하며, 이에 비해 제1종 전신업은 이동전화 및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함.

## 3) 공공건설업 : 11개 업종 개방

□ 개방이 허용된 11개 업종은 〈민간참여촉진공공건설법, 이하 '민촉법'〉<sup>4)</sup>에 따라 분류된 81개 공공건설 업종 중에서 14%를 차지함.

□ 중국 자본이 대만 공공건설에 투자하는 경우(수주는 제외), 〈민촉법〉 및 상관 규정에 따라야 함.

---

4) 중문으로 <促进民间参与公共建设法>임.

#### □ 개방하는 업종과 제한내용

- "민용 항공기지 및 그 시설" 개방 : 항공기지 부속건물(사람의 활동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, 공항내 빌딩, 공항청사, 수화물 운송로 등)에 한정되어 개방되며, 관리구역은 개방되지 않음. 또한 중국 자본의 주식 보유 비율에 제한을 둠.
- "항구 및 그 시설" 개방 : 중국 자본의 주식 보유 제한비율이 50%이며, 투자총액 제한액이 대만 화폐로 10-25억 위안임.
- 기타 "관광 및 휴식시설" 개방

#### 다. “투자세칙”에 따른 투자 조건들

- 중국 자본의 대만투자는 대만 "경제부"가 수립한 <중국인의 대만투자 허가방법>과 <중국 영리업체 대만지사 및 사무소 설립 허가방법>을 주로 따름.<sup>5)</sup>
- 중국기업은 대만 "경제부"에 자회사(子公司), 지사(分公司)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제3국을 경유하여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.
- 중국기업의 자본금이 대만 화폐로 8,000위안 이상인 투자 사업은 매년 재무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.
- <중국인의 대만투자 허가방법>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는 중국인, 법인, 집단, 기타 기구 또는 제3국 투자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, 규정에 근거하여 대만에서 투자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.
- 중국 자본이 제3국 투자회사를 경유하여 대만에 투자하는 경우, 제3국 투자회사의 직·간접 주식 보유액 또는 출자액이 30%를 넘는 경우, 제3국 투자회사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, 모두 중국 자본으로 간주하여 본 법을 적용함.

5) 법령은 중문으로 <중국인의 대만투자 허가방법>(大陆地区人民来台投资许可办法), <중국 영리업체 대만지사 및 사무소 설립 허가방법>(大陆地区之营利事业在台设立分公司或办事处许可办法)임.

- 중국기업이 대만 주식시장 투자(上市), 장외거래(上柜) 및 비상장 장외거래(兴柜)를 하는 경우, 1회 혹은 누계 주식투자액이 10%를 넘으면 직접투자자로 간주함.

#### 라. “투자세칙” 발표 이후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첫 번째 승인 사례

- 2009년 8월 12일, 대만 경제부 투자심사회의<sup>6)</sup>는 푸지앤성(福建省) 푸조우시(福州市)에 본사를 둔 "신중국과학기술그룹"(新大陆科技集团)의 대만 투자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킴.
- 신중국과학기술그룹은 대만의 독자 회사인 "디푸과학기술 유한공사"帝普科技有限公司)의 주식 58%를 소유하게 되었으며, 회사 이름도 "대만신중국주식유한공사"(台湾新大陆股份有限公司)로 개칭하였음.

#### 마. 대만투자 지원을 위한 정기직항로 개통 및 지사 설립

- 3차에 걸친 양국 협상회의에서 정기직항로 개통 합의 이후, 2009년 7월에 중국 민항국(民航局)이 중국측 항공사를 지정하였고, 2009년 8월 말에 정기직항로를 개통하였음.
- 중국 민항국(民航局)은 정식으로 9개의 중국 여객항공사와 2개의 화물항공공사를 지정하여, 35개의 여객기가 매주 27개의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되며, 14개의 화물여객기가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됨.
- 그 중 중국항공(国航), 동방항공(东航) 및 남방항공(南航) 등 3대 국유 항공사가 전체 운항수의 60% 이상을 차지하며, 동방항공의 운항수가 가장 많음.
- 위의 3개의 국유 항공사 외에 상하이, 선전, 하이항(海航) 등 3곳의 민간 항공사 역시 정기노선 계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노선별 탑승가격을 결정하여 운항에 들어갔음.
- 중국 항공사들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였음.

6) 경제부 투자심사회의는 중국기업 투자신청 심사를 주관하는 회의로 한 달에 한 번 개최된다. 이미 이전 달인 7월 29일 오전에 회의를 마쳤으나, 당일(29일) 오후에 신중국과학기술그룹의 대만투자 신청안을 접수하게 되면서 이 신청안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8월 12일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하게 되었음. 대만 경제부의 이러한 태도는 대만이 중국기업의 대만투자를 환영하며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.

- 남방항공과 중국항공은 8월 13일에 지사를 설립하여 대만에서 가장 처음으로 영업허가증을 획득하였음. 중국항공 및 3곳의 민간 항공사도 이미 지사 설립 허가를 받은 상황임.

### 3. 대만 시장 개방에 관한 양국 기업 설문조사

#### 가. 설문조사 개요

- "투자세척" 발표 이후, 중국의 <제일경제일보(第一财经日报)>와 대만의 <원견(远见)>(잡지사)은 합동으로 대만의 200여개 상장기업과 중국의 7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
- 주요 조사 내용은, 양국 기업의 △투자환경, △주력 분야, △우세 및 열세 분야 및 △상호 투자에 대한 태도임.
-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중국기업의 경우 임의추출(便宜取樣)을 통해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응답 기업수도 대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,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.

#### 나. 설문조사 항목별 내용

##### 1) 개방 만족도

- 중국기업의 15.4%, 대만기업의 40.5%가 개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, 대만기업의 만족도가 더 컸음.
-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양국 기업의 비율이 22.4%로 같았음.

##### 2) 개방 시책에 대한 만족도

- 중국기업의 13.4%, 대만기업의 40% 정도가 개방 시책에 만족하다고 응답하여, 역시 대만기업의 만족도가 더 컸음.

- 개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수의 중국기업은 대만의 개방시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, 60% 이상의 중국기업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.

### 3) 중국기업이 대만투자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정책

□ 70%에 가까운 중국기업이 화폐결산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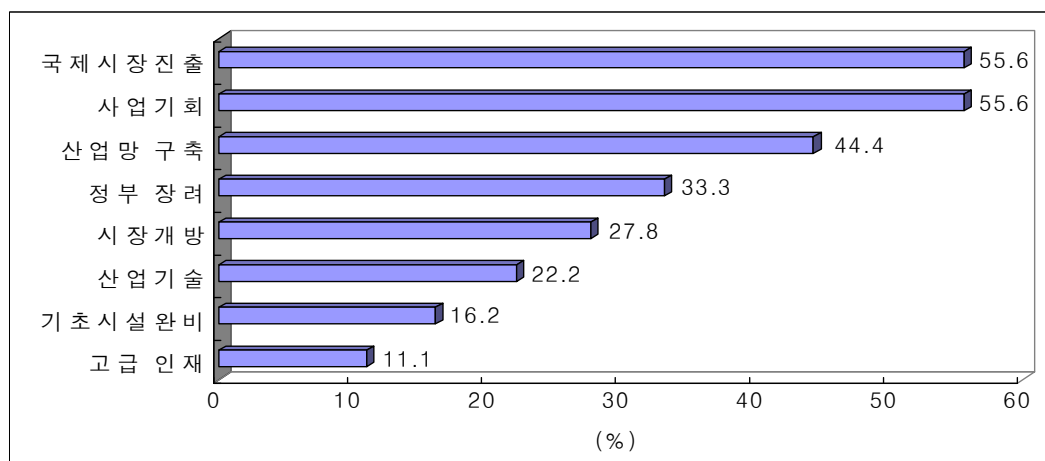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입장에서 만약 미국 달러로 결산하게 되면 환업무에 따르는 손실이 발생해 기업 이윤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.

### 4)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주요 목적

□ 55.6%의 중국기업은 “사업기회” 확보와 더불어 “국제시장 진출” 이라고 응답해, 대만시장 투자를 통해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.(그림 1 참조)

-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목적에 대한 예전 분석에서는 '산업기술'이 주된 응답이었으나,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'국제시장 진출'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음.

<그림 1>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목적 (단위: %)



자료 : 중국 〈第一财经日报〉와 대만 〈远见〉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



#### 5) 대만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대만투자 우선순위

□ 63.9%의 대만기업이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응답하였음.

- 다음으로 금융투자서비스업 60%, 여행관광업 40%, 생물·화학 기술 산업 35.5% 순으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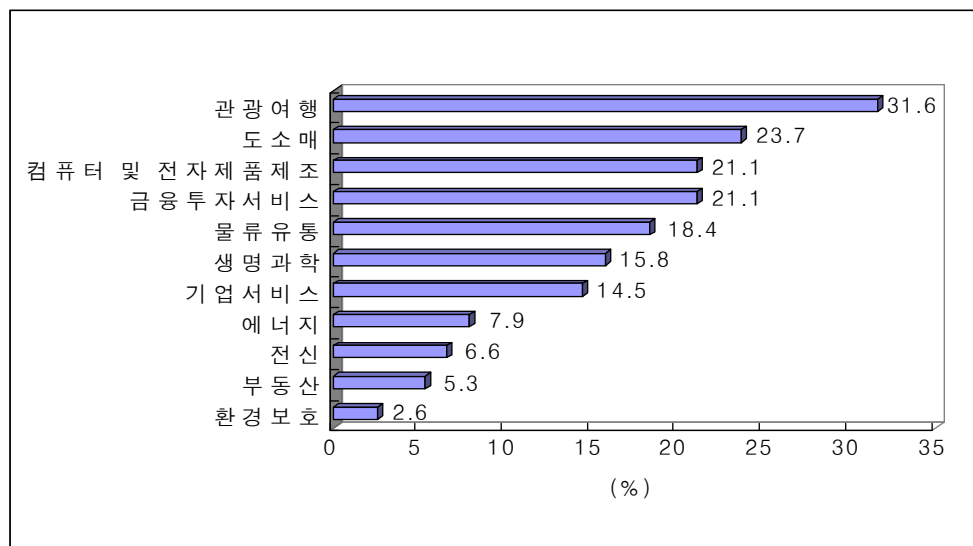
#### 6) 중국기업의 대만투자 업종 우선순위

□ 반면 31.6%의 중국기업은 대만의 관광여행 산업에 투자하기를 가장 원한다고 응답하여 대만기업의 응답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.(그림 2 참조)

- 이는 최근 중국 여행객이 대만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상업이익과 관련이 있음.

□ 다음으로 대만의 도소매업(23.1%),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(21.5%), 금융투자서비스(21.1%) 순으로 응답함.

<그림 2> 중국기업이 선호하는 대만 투자업종 (단위: %)



자료 : 중국 <第一财经日报>와 대만 <远见>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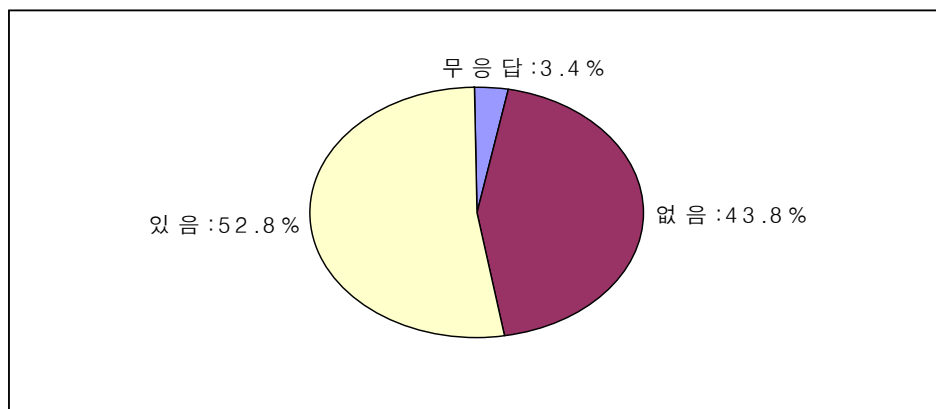
## 7) 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

- 대만기업의 2.7%만이 중국기업이 대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, 중국기업의 5.3%만이 대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, 중국 기업의 대만 부동산업 투자의사가 높지 않았음.

## 8) 대만-중국기업 협력 의사

- 중국-대만기업 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었음.
  - 76.9%의 대만기업이 중국기업과 접촉한 경험이 있었음.
  - 대만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, “중국기업의 혁신능력” (74.2%), “중국기업의 장기 전략” (61.3%), “중국기업의 국제관” (48.4%) 순으로 높이 평가하였음.
  - 중국기업의 대만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, “대만기업의 제도완비”, “신용우량”, “혁신능력”에 대해 50% 이상 응답하여 높이 평가하였음.
- 대만기업은 기업협력 의사에 대한 물음에 52.8%가 의사가 있으며, 43.8%는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음. (그림 3 참조)

<그림 3> 중국기업과의 협력 의사 (대만기업의 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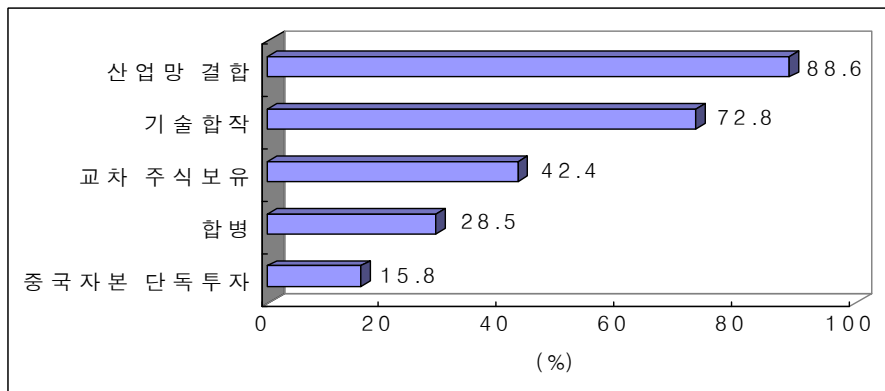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국 〈第一财经日报〉와 대만 〈远见〉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

- 협력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업종이 이번 1단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.
  - 대만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시장경쟁 등도 협력의사가 없는 중요한 이유였음.
- 중국기업은 기업협력 의사에 대한 물음에 60% 이상이 대만기업과 협력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으며, 40% 정도가 의사가 없거나 여전히 관망중이라고 응답하였음.

## 9) 협력 방식

- 대만기업은 자신의 비교우위를 결합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선호하였음.
- 선호하는 협력 방식은 “산업망 결합” (88.6%), “기술협력” (72.8%), “교차 주식보유” (42.4) 및 “합병” (28.5) 방식 순이었음. (그림 4 참조)

<그림 4> 대만기업이 선호하는 투자방식(단위: %)



자료 : 중국 〈第一财经日报〉와 대만 〈远见〉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

## 5. 대만 시장 개방의 의미

### 가. 대만에 주는 의미<sup>7)</sup>

7) 3 가지 견해는 대만 “경제부”가 피력한 것임.

- 첫째, 중국 자본의 대만투자는 대만 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며, 금융시장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.
  - 둘째, 양국 산업분야에서 각국의 우세를 결합한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  - 셋째, 국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만을 세계전략을 위한 기지로 삼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- 중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은 대만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, 국제 투자자들이 대만 시장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임.

## 나. 중국에 주는 의미

- 중국기업은 대만시장을 해외시장 진출의 ‘발판’ 으로 삼고자 함.
- 최근 몇 년간, 중국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도 겪으며,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앞서 경험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음.
  -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의 시장은 이제 막 개방되었으며 개방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아,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의욕적으로 투자하고자 함.

#### <참고자료>

- 第一财经日报, 2009/07/02, "台湾地区开放192项陆资赴台项目".
- 第一财经日报, 2009/07/02, "台湾连锁企业如何投资大陆".
- 第一财经日报, 2009/08/13, "台湾通过首例陆企赴台投资案".
- 第一财经日报, 2009/08/15, "两岸定期直航最早8月31日开飞".
- 第一财经日报, 2009/08/28, "六成大陆企业抛绣球, 台企谨慎面对陆资赴台".
- 第一财经日报, 2009/09/01, "大陆企业最想投资台湾行业: 观光而非房产".
- 第一财经日报, 2009/09/01, "六成大陆企业抛绣球, 台企谨慎面对陆资赴台".
- 第一财经日报, 2009/09/01, "大陆企业最想投资台湾行业: 观光而非房产".
- 福建日报网, 2009/07/01, "解读陆资赴台: 从第三地入台投资视为陆资".
- 台海网, 2009/06/30, "开放陆资循序渐进马当局先放行192项".
- 한국은행 북경사무소, 2009. 6. 15, 「양안(兩岸)관계 변화과정과 전망」

(자료 정리: 조성찬 / 중국인민대학 토지관리학과 박사과정)